

“남도는 민중 삶 토대로 한 생활문화 수도”



남도를 품은 이야기

유사한 개념이자 동질의 장소를 지칭하는 ‘호남’과 ‘남도’. 그러나 지역학에 따르면 ‘호남학’은 역사 중심의 용례가, ‘남도학’은 문화 중심의 용례가 많은 등 차이점을 보인다. 호남학이 역사적 입장이거나 호국 정신사적 맥락을 드러낸다면, 남도학은 서민문화와 민중 문화 혹은 평민문

민속학자 이윤선 ‘남도를 품은 이야기’ 출간
“하찮은 것들 속에서 의미 찾는 것이 시대정신”

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학보다 남도학이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저자 이윤선씨가 신간 ‘남도를 품은 이야기’를 통해 남도의 역사와 민속 등 무형 유산을 아우르며 이땅의 풍속과 정서를 규명한다. 이 작가는 ‘남도 인문학’을 주창하는 민속학자로서 판소리와 무가 같은 소리에도 밝다.

이번 책은 역사와 인물, 풍속과 전통, 구전과 설화, 소리와 춤 등 남도의 풍요로운 문화유산들을 다층적 이야기를 통해 소개한다. 나주 유배지에서 국가 통치

철학을 가다듬고 떠난 삼봉 정도전과 같은 역사적 인물부터 공옥진, 장월중선 등 예술가들의 생애와 문화 이야기, 남도 특유의 식도락과 웅기배 등 생활 문화에 이르는 토속 문화 등 장르도 다양하다.

남도에서 시작한 저자의 관심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지나 남태평양까지 뻗어나 간다. 책에서 그는 남도의 ‘진놀이’와 닮은 원무 놀이를 하는 미크로네시아의 아이들을 만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인도네시아 자바국과의 교류의 흔적을 찾는다. 젓갈이 발달한 베트남을 우리 나라와 ‘발효 문화권’으로 묶으며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한다.



민속학자 이윤선 /광주MBC 제공

이와 더불어 여성과 서민의 풍속에도 주목한다. 여성 최초의 문집을 낸 담양 출신의 송덕봉. 그녀는 16세기 양반 사대부 부부관계의 전형과 달리 첩실을 둔 남편 유희춘을 꾸짖는 등 굴종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인물이다.

남도에서 시작된 ‘상례’도 조명한다. 곡을 하며 3년상을 치르거나 조문객들과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죽음을 축제

로 승화시키는 남도의 ‘상례’는 권위적 기층 질서에 대한 유포한 반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작고 하찮은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시대는 서민의 인권과 역량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대 이후 경향만 보더라도 선거권의 쟁취, 여권의 신장, 지배세력에 대한 항거 등 피지배 계급의 역량이 강화돼 왔다. 이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서민 문화다. 한국 정신문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신문화의 요체를 서민의 말과 몸짓, 풍속에서 깊이 올려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남도는 여성을 포함한 민중들의 삶을 토대로 삼는 생활문화의 수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는 남도 정신문화의 요체다.”

한편 저자는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이사장과 남도민속학회 회장, 일본 가고시마대학 외국인 교수, 베트남 다낭외대 공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남도문화재전문위원이다. /오지현 기자

세책 나왔어요

◇옥춘당=고정순 작가가 처음 선보이는 만화책. 제사상에 서 가장 예쁜 사탕 옥춘당을 통해 애뜻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만든 이야기. 옥춘당처럼 달달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길벗어린이. 120쪽.

◇이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관계망 속에서 개인의 위상과 개인주의에 대한 편견을 들여다보며, 개인주의의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되, 타인의 권리도 고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양식’이라고 주장한다. 남해의봄날. 272쪽.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박완서 작가의 10주기를 기념해 출간된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의 10만 독자 기념 한정판. 박 작가의 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베스트 35편을 선별한 ‘박완서 에세이의 정수’가 담겨 있다. 세계사. 288쪽.

◇장미의 이름은 장미=‘외국·여행자·타인’이라는 세 점을 교차하며 그에 따른 반응을 관찰하는 은희경식의 정교한 실험 중 하나. 소설 속 인물은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되비추는 유연함을 지니고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 문학동네. 256쪽.

◇무중력의 사랑=김승미 기자의 6주기에 맞춰 출간된 그녀의 글을 모아둔 책. 자신을 ‘무중력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소개한 저자는 불안하지만 마음껏 글을 쓸 수 있어 평화로운 공간에서 보편적인 감정들을 적어 내려갔다. 동녘. 188쪽.

‘어른이’ 마음 위로하는 동시 59편



올해의 좋은 동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동안 각종 매체에 발표된 신작 동시가운데 59편의 작품을 선정한 ‘올해의 좋은 동시 2021’이 출간됐다.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좋은 동시 59편을 선정한 권영상, 김개미, 안도현, 유강희, 이안 시인 등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주목한 올해의 키워드는 ‘변화’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동시 역시 어린이 독자를 위한

권영상·김개미·안도현·유강희·이안 시인 선정
변화 키워드…20일 오후 7시 온라인출판기념회

작품이 아닌 어른들도 즐겨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59편의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동시가 스타일과 내용 면에서 다채로워지고 풍요롭게 읽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은 자연과 경험에서 벗어나 도시와 환상의 공간에서 시를 길어 올리기 시작했다”며 “이런 변화는 궁극적으로 동심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작품들이 보이는 양상을 중 강간 메시지 전달이 뒤로 숨고 재미와 상상력이 중시되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이번 동시 선정에는 권오상, 김룡, 김창완, 송판호, 성명진, 장철문, 함민복 등 탄

탄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기성 시인들의 동시 뿐만 아니라 개성적 목소리를 지닌 시인들의 다양한 동시가 실렸다.

이안 시인은 해설에서 “동심은 현재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지나왔으나 여전히 어른 안에 남아 있는 어린이의 시간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시인의 말처럼 선집에 실린 동시에 표현된 다채로운 목소리와 개성적인 시각은 동시의 독자가 어린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한편 20일 오후 7시 줌(Zoom)을 통해 ‘올해의 좋은 동시 2021’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시인들의 낭송을 시작으로 열릴 기념회는 독자와 작가들이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즐겁고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나와의 화해’ 자기계발서 트렌드 변화

2030세대 스펙업·4050세대 자녀학습서 구매 높아

2022년 새해 베스트셀러 트렌드는 스펙업, 초중고학습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로 나타났다. 서점 예스24가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연평대 도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연 말연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자기계발서는 ‘자기 혁명’에서 ‘나와의 화해’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18일 예스24에 따르면 2030세대 목표는 ‘스펙업’이다. 베스트셀러 30위권중 수험서가 30%였다. 토익 및 한국사 수험서가 베스트셀러 30위권에 총 9권 오르며 30%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서 분야별 구매 점유율에서도 수험서 자격증 분야 점유율이 12.7%로 가장 높았다. 스펙에 스펙을 더하며 고군분투 중인 청년들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30 연령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8.1%의 점유율을 기록한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는 ‘부자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나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등 투자 및 재테크 실전서들이 상위권에 포진됐다.

4050세대는 자녀 뒷바라지가 먼저였다. 100위권 중 54권의 도서가 초등·중고 등 학습서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집값 부담 탓에 노후 준비도 못다 했지만 자녀 교육에서조차 해방되지 못한 4050세대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기계발서는 ‘자기 혁명’에서 ‘나와의 화해’로 트렌드의 변화를 보였다.

10년 전에는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 혁명’이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와 같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원리원칙을 제시하며 자기계발을 돕는 책들이 대세였다. 반면, 올해는 ‘5년 후 나에게 Q&A a day’나 ‘오은영의 화해’와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끌며 내면의 나를 마주하고 위로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공감받는 분위기다. /오지현 기자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DASCO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www.dasco.kr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단지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록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썬에코(수상태양광)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스틸코(철근유통·가공)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흥인(부동산 임대업)